

# “잘 쓰이는 배우 되고 싶어요”

영화 '파파로티' 출연 불자 배우 차중호 씨



불자배우 차중호씨가 '파파로티'에 개털로 출연 주목받고 있다. 사진 중간이 차중호 씨

“수행을 하면서 제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졌어요. 배우 오래 할 거면 기다리는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부터 감독님들이 불러 주면 열심히 연기를 했고 또 촬영이 없으면 봉사할 곳을 찾아 다녔죠. 그러다 보니 삶의 여유가 생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됐습니다. 불법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뾰글머리가 인상적인 차중호 씨는 수행하는 배우다. 예불-108배-명상-경전독송

## 뾰글머리 인상적인 개성과 배우 기도·봉사하며 긍정의 힘 얻어

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배우 차중호 씨. 그는 최근 개봉 2주만에 관객 100만을 돌파한 영화 '파파로티'에 성악천재 건달 장호(이제훈 분)를 따라다니는 개털 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조금씩 얼굴을 알리는 것은 물론 각종 광고의 모델로도 꾸준히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지금도 동글동글한 외모에 귀여운 인상을 풍기는 개성과 배우지만 한동안 그의 외모와 마음 모두가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할 만큼 괴짜(?)했던 적이 있었다. 27살에 상경해 인테리어디자이너에서 배우로 진로를 바꿨지만 오디션은 보는 족족 낙방했고 믿고 있던 선배에게도 배신을 당했다. 앞치면대친다고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해왔다. “2010년 정도의 즉문즉설 법회에서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했죠. 제 나름 세상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환경 탓 조건 탓 하게 된다고. 스님께서 그때 남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차 씨는 불교에 입문해 불법을 공부하고 매일 참회기도하고 봉사활동하며 잘 쓰이는 삶을 찾게 됐다. 그동안 차 씨에게는 조급함이 컸었다. 스스로 괴로웠던 이유는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세속적 욕망 때문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러다 보니 오디션을 가서도 잘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자주 심사위원들의 눈치를 보게 됐고 조금만 잘나가는 동료들을 보면 마음이 급해졌다.

“참회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돌아키는 힘을 얻었죠. 그때부터는 30분을 오디션에 연달아 낙방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떨어지면 아예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죠. 좀더 당당하게 오디션에 임하니 저를 불러주는 곳도 차차 늘어가더라고요”

이후 차씨는 정토회 청년부 운영진, 청년불교대 운영 담당을 맡으며 스스로 주인공 되는 삶을 살고 있다. “불법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인생을 크고 길게 볼 수 있는 배정이 생겼다고 할까요? 이제는 성공보다는 제게 잘 맞는 배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혜도 얻었죠. 앞으로도 어디에서든 잘 쓰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 국립대구박물관 인문학 강좌 개설

국립대구박물관이 경북대 인문대와 함께 '2013년 교양시민인문강좌-재미있는 고전이야기' 강좌를 연다. '불교와 힌두교'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가는 이번 강좌는 4월 6일-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강좌의 4월 6일, 13일 공자와 '논어' 이세동 교수(중어중문학과) △4월 20일,

27일 노자와 <도덕경> 김규중 교수(노어노문학과) △5월 4일, 11일 <장자> 김용수 교수(윤리교육과) △5월 18일, 25일 사마천과 <사기> 윤재석 교수(사학과) △6월 1일, 8일 불교와 힌두교 임승택 교수(철학과) △6월 15일, 22일 퇴계와 남명 정우각 교수(국어국문학과) 순으로 진행된다. (053)760-8580-3 정혜숙 기자

##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칠보문(七寶文)→무량보주(無量寶珠) ④

# 잘못 읽어 온 생명생성의 상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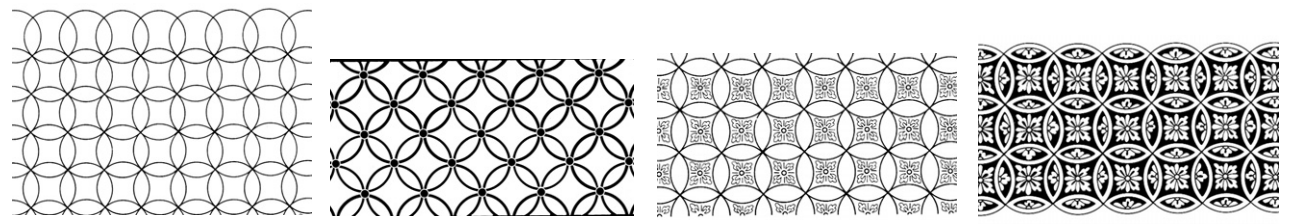
동양 미술에는 원이 여러 개 겹쳐 있도록 중첩한 무늬가 널리 쓰이고 있다. 평면에 그 무늬가 쓰이는 경우가 있고, 입체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건 무조건 '칠보문(七寶文)'이라 부른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중첩한 원들을 표현하는 조형은 회화, 공예, 복식 등 어디든지 볼 수 있다. 그러면 우선 칠보문이 무엇인지 한한(漢韓) 사진이나 인터넷 사진이라도 찾아보아야 한다. 칠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칠보1[七寶]**  
금, 은, 구리 등의 바탕에 갖가지 유리질의 유약(釉藥)을 발라 고운의 가마에 굽는 과정을 거쳐 꽃, 새, 인물 따위의 무늬를 용해하거나 부각하여 나타내는 공예의 기법. 또는 그 공예품을 말한다. 칠보 도자기란 말도 생겼는데 왕실에서 사용한 머리 장식품을 비롯한 화려한 장신구를 가리킨다.

**칠보2[불교]** 일곱 가지의 보배를 일컫는다. <무량수경(無量壽經)>에서는 금, 은, 파리(玻璃), 마노(瑪瑙), 거거(車渠), 유리, 산호를 가리키며, <법화경(法華經)>에는 금, 은, 마노, 유리, 거거, 진주, 매괴(玫瑰)를 가리킨다.

근거조차 알 수 없는 이름  
그러나 하나는 제작기법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일곱 가지 보배를 말하므로 같은 말이라도 개념이 전혀 다른데, 칠보문이라면 어느 것을 말하는가. 칠보문이란 용어를 생각해보면 위의 어느 것에서도 그런 용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칠보문이란 용어는 있을 수 없으니 이 용어는 없어야 한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말하는 평면적 칠보문을 살펴보자.(그림①-4) 그림①-1과 그림①-2는 같은 것이나 방향만 다르지 가장 기본적인 조형이다. 그림①-3과 그림①-4는 공간마다 꽃무늬를 넣었다 하여 화칠보문(花七寶文)이라 부른다.

무늬를 부석하여 보자. 사람1은 그림②의 칠보문을 보았을 때, 1의 무늬, 즉 네 개의 꽃잎 같은 무늬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네 개의 꽃잎이 모인 사엽화문(四葉花紋)이라 부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2의 모양을 보는 사람2가 있다. 이 경우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아직 명칭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엉뚱한 용어를 만들지도 모른다. 3은 사람3이 큰 원만 보고 세 개의 원이 중첩되어 있음을 본 것이라 옮겨 본 사람이다. 나머지 중첩하는 과정에서 생긴 조형은 꽃잎도 아니고 부수적으로 생긴 아무 의미 없는 조형이다. 즉 여러 개의 원을 겹쳐 있게 중첩시켜 만든 무량한 보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조형이 무량한 보주를 나타낸 것일까? 그 답은 다음 회에서 분명해 질 것이다. 그림③은 원의 선의 굵기가 굵어서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 경우는 투각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다음에 다룰 입체적 조형에



그림①-1 그림①-2 그림①-3 그림①-4

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림②와 다르지 않은데, 그림③에서는 원과 원이 만나는 자리에 작은 보주가 있는 것이 다르다.

그림④인 화칠보문을 보면 가운데 무늬가 꽃이 아니다. 중심에 작은 빨간 보주가 있고, 사방으로 제3영기씩이 발산한다. 옆에 도해한 것처럼 제3영기씩을 면(面)으로 병형시켜 만물생성의 조형으로 만든 것이다. 보주가 생명생성의 근원인 것처럼 제3영기씩도 생명생성의 근원이므로 서로 결합할 수 있어 흥미로운 조형이 탄생한 것이다. 그림⑤도 마찬가지다. 좀 더 장식화하여 복잡하여 겹쳐 뿐 보주와 제3영기씩들이 결합한 아름다운 영기문이다.

사방으로 발산하는 영기문에 주목  
이렇게 여러 가지 조형을 분석하고 보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고려 무량보주상감잡자 도침>이 금방 눈에 잡힐 것이다. 무량보주를 투각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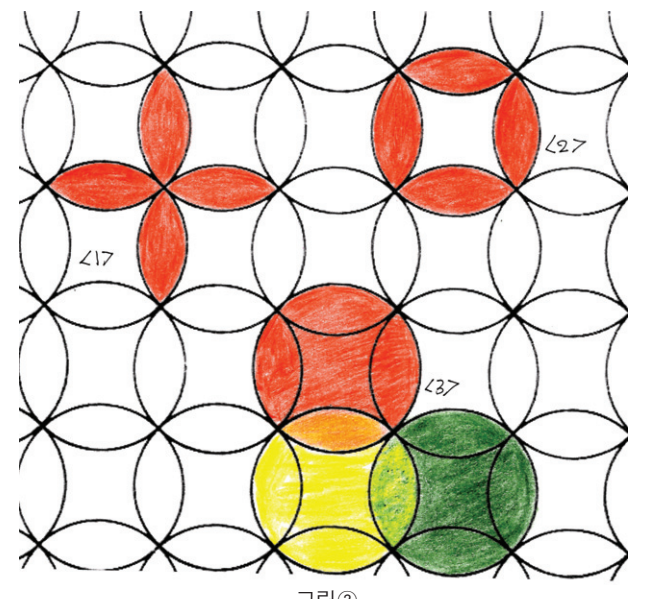
## 무량보주, 동양 최고 창조품

## 칠보문이라 불리며 무생물로 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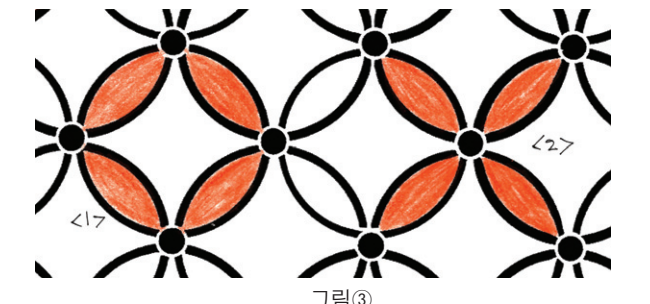
배계를 만든 것인데 모두가 <칠보 투각 고려청자 상감 도침>이라 부른다. 정면을 보면 가운데 있는 둥근 보주판 안에 상감한 국화꽃 모양이 있고 사방으로 제3영기씩이 발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계를 거쳐 증명하겠지만 국화가 아니고 보주꽃의 간략화한 모양이며 사방으로 발산하는 것은 잎이 아니라 제3영기씩 영기문이다. 보주꽃이기에 영기문이 사방으로 발산하는 것이다. 측면을 보면 중앙에 둥근 원이 크게 뚫려 있어서 무량하게 생기는 보주들이 그 원형 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이렇게 고차원의 형이상학적인 상징이 내포되어 있는 무량보주의 조형이 엉뚱한 칠보문으로 불리어져서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쳤으니 그 수많은 생명력 가득한 무량보주의 조형은 아무 생명 없는 무생물이 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무량보주라는 동양 최고의 창조품은, 이제 비로소 살아나 강력한 빛을 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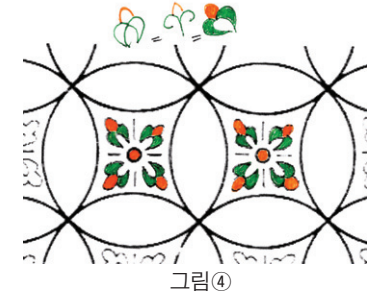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②



그림③



그림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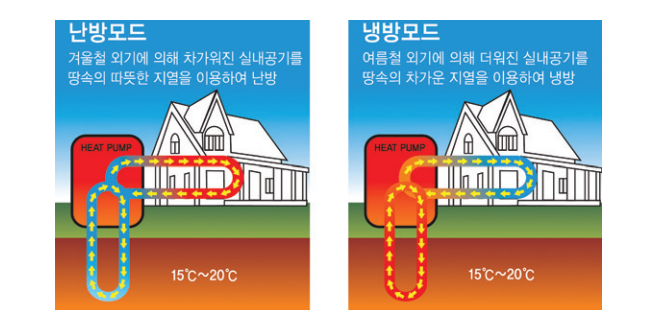
그림⑤



그림⑦

##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역히트펌프 냉 난방 기름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명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수익성



##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창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생명 에너지를  
글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 민속죽염 23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활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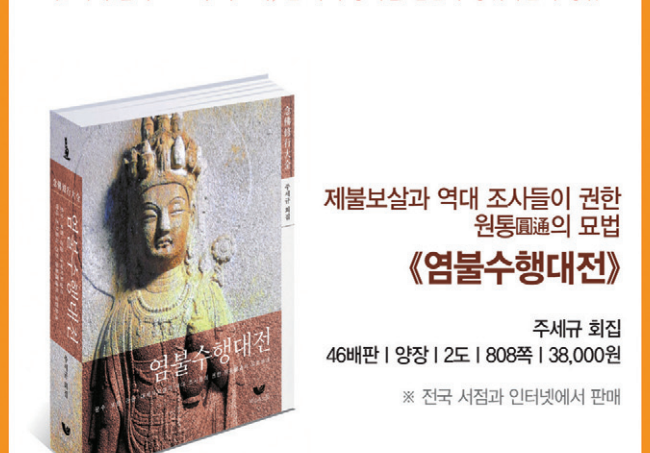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 구입시 시은품 (후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은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범문을 뛰어넘는다!”

상종하 모든 근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률 높으며, 힘 적게 들고 효과 빠르며,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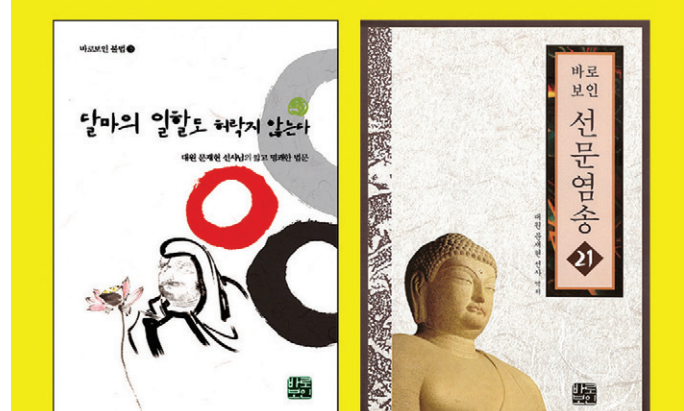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교사의 염불법론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0쪽에 달하는 이른바 '백독백'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정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삼미 사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출판 및 배급(특별법인) 문의 02-2632-8739 | 비둘기소통 buddhapia5@daum.net



##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신문염승 21권 세계 최대의 공인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공공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공공한 33가지  
031)534-3373